

정탐의 기록: 19세기 미국 낭만주의 풍경화와 프로테스탄트 윤리

이 상 윤 (국민대학교)

- I. 서론
 - II. 뉴잉글랜드 풍경화에 반영된 금욕적 청교주의
 - III. '명백한 운명'으로의 변화
 - IV. 정탐의 기록으로서 서부 풍경화와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반영
 - V. 결론
-

I. 서론

19세기 미국의 낭만주의 풍경화는 대자연이 주는 장엄과 경외뿐 아니라,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시원적 풍경을 강조하였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19세기 풍경화는 남북전쟁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 작품들 간의 차이가 있다. 이 차이점은 일차적으로는 풍경이 미국 동부에서 서부로 대체되었다는 변화를 지시하고, 더 깊이는 이러한 변화에 배경으로 작용하였던 당시 정치 상황,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주었던 지도계층의 시각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앤드류 잭슨(Andrew Jackson)의 팽창주의에 반대하였던 미국 젠트리 계층이 남북전쟁 이후에는 서부 진출을 주장하게 되고, 이들을 지지하였던 풍경화가들은 이 변화를 작품에 반영하였다. 위와 같은 분석은 사실 1990년대 이후부터 19세기 낭만주의 풍경화의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연구하였던 엔젤라 밀러(Angela Miller), 앨런 월릭(Alan Wallach), 팀 베링어(Tim Barringer)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이들에 의해 미국의 낭만주의 풍경화는 미국의 아이콘적 풍경을 제시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 곧 유럽과 구별된 미국적인 풍경을 제시함으로써 이데올로기적인 회화로 해석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낭만주의 풍경화에서 가시화된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또는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무엇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깊이 다루지 않았다. 다시 말해, 낭만주의 풍경화에 내재된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들이 왜 그러한 신념을 지키려 했는지의 설명은 충분치 않았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발표자는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분석한 막스 베버(Max Weber)의 시각을 수용하고자 한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의 종교적 신념과 여기에서 파생된 윤리가 개인의 삶뿐 아니라, 기업과 사회와 국가의 변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프로테스탄트 국가에서 어떻게 자본주의가 발전될 수 있었는지의 이유를 개신교 윤리에서 찾았다. 마찬가지로 남북전쟁 이전의 풍경화에 반영되었던 반팽창주의 이데올로기가 남북전쟁 이후에는 팽창주의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 대조적인 변화가 무엇 때문에 가능했으며,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프로테스탄트 윤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실제 작품에서는 어떻게 내재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II. 뉴잉글랜드 풍경화에 반영된 금욕적 청교주의

허드슨강 화파의 주창자 토마스 콜(Thomas Cole)은 1801년 영국 랭커셔 지방에서 출생하여

1817년까지 영국에서 거주하였고, 미국에 온 뒤 7년만인 1825년부터 본격적으로 풍경화를 그렸다. 기계파괴 운동 러다이트(Luddite)의 본거지인 볼튼 르 무어스(Bolton-le-Moors)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던 콜은 아버지로부터 엄격한 청교주의(Puritanism)의 교육을 받았다. 이와 같은 성장 배경 아래 콜은 기계화를 지지하였던 거대 자본가들과 칼뱅의 교리대로 노동의 가치를 추구하였던 청교도들 간의 갈등을 직접 경험하였다.⁴⁷⁾ 이러한 콜의 청교주의 사상에 비추어 볼 때, 그에게 잭슨 정권이 주장하는 팽창주의 이데올로기는 청교도들의 금욕적 윤리에 대한 위협과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콜의 반(反)팽창주의적 시각은 그의 풍경화에도 내재되었다. 메사추세츠 커네티컷 강의 풍경을 그린 콜의 <홀리요크 산에서 본 정경(View from Mount Holyoke)>(1836)은 실제 풍경을 재현하고 있으면서도 세부에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였는데, 왼쪽 홀리요크 산의 시원적 자연은 금욕과 순수함을 추구하는 청교도의 윤리 의식을, 반대로 오른쪽 커네티컷 강가의 농경지는 개발 중심의 팽창주의 이데올로기를 상징하는 풍경으로서 콜은 이 둘을 한 화면 내에서 나란히 대조시켰다.

한편 화면을 가로지르는 우각호(牛角湖)는 큰 물음표 형태를 띠고, 원경에 있는 산에는 히브리 글자 ‘샤다이(יְהוָה, shaddai)’가 쓰였는데, 이 글자는 하늘 쪽에서 아래로 볼 때는 홍수 심판의 주인공인 ‘노아(נֹחַ, Noah)’로 읽을 수 있다.⁴⁸⁾ 콜은 히브리 글자를 이용해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심판과 곧 다가올 심판 모두를 상기하도록 하였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가오는 먹구름과 폭우는 신에 의해 인간의 문명은 한 순간에 멸망될 수 있다는 재앙적 종말을 확인시킨다.

<우각호>에 나타난 팽창주의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는 이전의 작품들에서 보다 더 직접적으로 나타났다. 1829년부터 1831년까지 그린 <제국의 행로(The Course of Empire)>는 <야만의 상태>, <아르카디안의 상태>, <제국의 완성>, <파괴>, <황폐함> 총 다섯 작품으로 구성되었고, 대제국의 영화가 한 순간에 종말로 치닫게 되는 과정을 그린 것이다. <제국의 행로>에서 콜은 영국의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영국의 전철을 밟는 잭슨 정권의 야욕, 양자 모두에 대한 비판을 가시화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토마스 콜의 시각은 이후 프레데릭 에드윈 처치(Frederick Edwin Church)나 에셔 브라운 뒤랜드(Asher Brown Durand) 등과 같은 허드슨강 화파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들의 작품에는 탐욕으로 타락한 유럽이 아닌 ‘신세계’ 미국의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교훈과 계시를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암시되었다.

III. ‘명백한 운명’으로의 변화

뉴잉글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시원적 자연을 재현하고 이를 미국의 아이콘적 풍경으로 제시하였던 허드슨강 화파는 남북전쟁을 기점으로 이후에는 영토 확장 정책에 대한 달라진 시각을 반영하였다. 이 변화는 이미 1840년대 미국 내에 팽배하였던 시각이 드러난 것으로서 1845년 저널리스트 존 오설리번(John O’Sullivan)은 이를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이라고 함축하였다. 오설리번이 천명한 ‘명백한 운명’은 미국의 영토를 아메리카 대륙 전체로 확장하는 것이 곧 신의 뜻이라는 의미가 내재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잭슨의 팽창주의에 반발하였던 뉴잉글랜드의 모순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기능하였다.

47) Alan Wallach, “Thomas Cole: Landscape and the Course of American Empire”, William H. Truettner and Alan Wallach edit., *Thomas Cole: Landscape into History*,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and London, 1994, 24-25.

48) ‘샤다이’는 ‘엘 샤다이’에서 비롯된 단어로 ‘전능자 하나님(God Almighty)’으로 번역되는 히브리 글자이다. 매튜 배이겔(Matthew Baigell)과 알렌 커퍼먼(Allen Kaufman)은 위의 형태를 히브리 글자로 해석하였고 이 내용을 아래 논문에서 서술하였다. Matthew Baigell and Allen Kaufman, “Thomas Cole’s The Oxbow: A Critique of American Civilization”, *Arts Magazine* vol. 55, Jan 1981, 136-9.

잭슨 정권기에 서부 진출에 반대하였던 뉴잉글랜드는 청교주의 윤리를 따랐던 계층으로 청교도들은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고 믿었으며, 때문에 구교에 비해 한층 더 구원의 여부가 불확실해졌고 이 불안은 자신의 구원을 매일의 삶에서 확인시켜줄 금욕적 윤리로 나타났다. 또한 그들은 부의 획득이 구원의 증거, 즉 신의 선택을 받은 개인이 신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성실히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축복으로 여겼으며, 때문에 성실과 정직을 기반한 노동의 가치와 공리주의를 무엇보다 중요시하였다. 사회 계층적으로 볼 때 그들은 영국의 젠트리(gentry)와 유사하였는데, 17세기 플리머스에 정착한 청교도들과는 달리 이들은 귀족 못지않은 명망가를 이루기도 하였으며, 법률가, 은행가, 상인, 공장주, 증권업자 등 부유한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한편 서민 출신으로 “대중의 사람(man of people)”이라 불렸던 앤드류 잭슨 대통령의 정책에는 반대하였고, 잭슨을 지지했던 남부 대농장주나 서부 개척자들과도 지역적, 계층적, 종교적으로 구별되었다.

특히 허드슨강 화파를 후원하였던 소장자 계층 역시 젠트리에 속한 인물들이었으며, 이들과 특별한 친분을 유지했던 화가들도 또한 젠트리의 종교적 정치적 성향과 다르지 않았다. 그들 중에서 브라운 뒤랜드는 토마스 콜과 친분이 두터웠으며, 후에 콜을 추모하기 위해 토마스 콜, 윌리엄 켈린 브라이언트(William Cullen Bryant), 뒤랜드 자신의 모임을 소재로 한 <동지들(Kindred Spirits)>(1849)을 그렸다. 이 작품의 표면적인 주제는 청교주의 자연관, 즉 신에 의해 창조된 자연으로부터 도덕적 교훈을 찾고자 했던 세 동료들에 관한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의 독보적인 미술 단체로 부상한 NAD(National Academy of Designs)의 원장 뒤랜드, 『뉴욕 이브닝 포스트』의 편집장이자 저명한 시인이었던 브라이언트, 그리고 NAD의 설립에 참여한 콜의 회동을 통해 당시 미국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젠트리 계층의 규합과 이들의 사상적 배경이 된 청교주의 정신을 동시에 시사해 주었다.

당시 청교도 윤리를 따르는 ‘신흥 부유층(nouveau riche)’이자 휘그당 지지자들로 구성된 NAD의 구성원들에서 미술가들과 신흥 엘리트 뉴잉글랜드의 결속을 볼 수 있었다면 1839년에 설립된 ‘미국예술협회(American Art Union)’의 구성원들 역시 NAD와 대부분 중복되었다. 앞서 언급한 브라이언트뿐 아니라, 『브로드웨이 저널』의 헨리 레이몬드, 『뉴욕 트리뷴』의 호러스 그릴리(Horace Greely) 등과 같은 언론인 그리고 이리 철도(Erie Railroad)의 프랜시스 에드몬드(Frances W. Edmond), 일리노이 중앙 철도(Illinois Central Railroad)의 조너던 스톨지스(Jonathan Sturges) 같이 서부 진출에 직접적인 이권을 가진 사업가들 역시 AAU의 운영위원으로 초대되었고, 같은 이유에서 AAU는 NAD의 운영목적이나 방식에서 상당 부분 유사성을 보였다. 단지 AAU와 NAD 간의 차이점이라면 NAD에 비해 AAU가 뉴잉글랜드 간의 교류 이상의 목적을 가졌다는 점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단체는 설립부터 공리주의적 시각에서 대중의 ‘교화’에 목적을 두었다. AAU는 또한 복권 판매와 작품 판매를 병행함으로써 대중의 예술 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였고 이윤추구에 적극적이었던 이러한 운영방식 역시 프로테스탄트의 자본주의 윤리에 부합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 때 막대한 비용 지출로 서부 진출에 부정적이었던 미국의 여론은 ‘명백한 운명’의 구호가 등장하면서 서부 진출이 욕구의 충족을 벗어나는 “비합리적 의식의 실천” 또는 신으로부터 받은 국가적 소명이라는 생각으로 전환되었다.⁴⁹⁾ 또한 서부는 신이 약속한 땅, 미국에게 허락된 땅이며,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욕구뿐 아니라 모든 것에서 사명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는 프로테스탄트의 윤리 의식이 깊숙이 작용하였다. 미국 사회 전반에서 서부 진출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형성되는 가운데 남북전쟁을 겪은 후 미국은 ‘명백한 운명’의 성취에 매진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AAU가 개최하는 전시에서 수상작들의 주제도 변화를 보였다. 남부와 북부 양측 모

49) 막스 베버, 박문재 옮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1904-5), 현대지성, 2018, 119.

두를 자극하지 않은 미국적 풍경을 재현한 작품이나, 서부 진출의 정당성을 암시하는 풍경화나 장르화 또는 미국의 건국 역사를 상기시키는 역사화 등 이데올로기적 작품이 이전보다 더욱 부각되었다.

IV. 정탐의 기록으로서 서부 풍경화와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반영

그런데 이러한 ‘명백한 운명’으로의 전환 이면에는 이민으로 인한 미국의 인구 증가와 서부 거주민의 증가로 인해 서부로 향하는 새로운 통로 개척이 요구되었다는 시대적 배경이 작용하였다. 통로 개척에 따른 철로 확장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철도 회사와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서부 탐사대들이 속속 조직되었다. 이 탐사대들은 서부 지형과 지질, 원주민과 생태계 전반을 관찰하고 파견 기관에 보고하는 일들을 수행하였는데, 그것은 마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파견된 이스라엘 정찰대에 관한 구약의 기록을 상기시켰다. 정탐 여행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정탐대는 가나안의 풍족한 음식뿐 아니라, 큰 체격의 원주민, 거대한 성과 도시 등에 대해 보고하였고, 이 보고를 통해 가나안의 규모에 압도되었던 이스라엘 내에서는 정복전쟁에 대한 여론이 양분되었다. 정탐대원들 중 두 명만이 정복 전쟁의 당위성을 계속 주장하였는데, 이들이 근거로 삼았던 것은 가나안은 바로 신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이라는 종교적 믿음이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과 마찬가지로 ‘명백한 운명’으로 서부 진출을 정당화하였던 당시의 주장은 위와 같은 구약 기록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1850년대까지도 뉴잉글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동부 풍경화에 몰두했던 허드슨강 화파도 남북전쟁 이후부터는 ‘명백한 운명’의 기치 아래 서부 탐사대에 합류하였다. 이 때 그려진 풍경화는 서부를 척박한 불모지로 인식하였던 이전의 작품과 차이를 보였다. 그들은 정복 전쟁을 주장한 두 정탐꾼처럼 서부의 자연 경관을 낭만주의적으로 재현하고, 이를 약속의 땅으로 인식하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보였던 화가는 알버트 비어슈타트(Albert Bierstadt)와 토마스 모란(Thomas Moran)으로, 이들은 장엄하고 숭고한 풍경을 그린 점에서 허드슨강 화파의 특성을 이어받았으나, 그들의 풍경화가 서부에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로키산맥파(The Rocky Mountains School)’로도 불렸다. 이중 비어슈타트는 군인이자 탐험가인 프레데릭 웨스트 랜더(Frederick West Lander)와 함께 1859년 처음 탐사여행에 참여하였고, 이후 1863년과 1871년 총 세 번에 걸쳐 로키산맥과 요새미티 등의 서부 지역을 여행하였다.

비어슈타트는 첫 탐사여행을 이끌었던 랜더가 남북전쟁에서 전사한 것을 추모하기 위해 1863년 <로키산맥, 랜더의 봉우리(Rocky Mountains, Lander's Peak)>(1863)을 그렸다. 1859년 탐사의 스케치를 바탕으로 뉴욕에서 완성된 이 작품은 전경에 인디언 부락을 그려 이국적인 정취를 강조하였는가 하면, 원경에는 알프스 산을 상기시키는 험준한 산세와 눈이 덮여 신비스럽게 보이는 봉우리가 그려졌다. 이 작품은 당시 사상 최고가인 25000달러에 판매되어 처치의 최고가를 갱신하였다. 또한 비어슈타트가 1864년부터 1868년까지 반복하여 그린 <요새미티 계곡>은 모두 중앙에 어슴푸레하고 신비스러운 빛이 비추고, 화면 양쪽에 높은 절벽과 봉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구성을 취하여 고요하고 아늑한 느낌을 강조하였다. 특히 왼쪽의 뾰족한 봉우리는 마치 고딕성당의 첨탑을 연상케 하여 “자연 대성당(natural cathedral)”으로 불렸다.⁵⁰⁾ 이와 같이 비어슈타트의 서부 풍경화는 대부분 허드슨강 화파가 즐겨 사용한 루미니즘(Luminism)적인 광선 기법과 외경심을 갖게 하는 거대하고 시원적인 서부 풍경을 강조하여 서부를 낭만주의적으로 재현하였다는 특징을 보였다.

초기에 민간 지원이 주를 이루어졌던 탐사여행은 1870년대부터 정부 주도의 형태로 바뀌어졌다.

50) Angela Miller, "Albert Bierstadt, Landscape Aesthetics, and the Meanings of the West in the Civil War Era", *Art Institute of Chicago Museum Studies*, Vol.27, No.1, 2001, 48.

토마스 모란은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4대 조사사업 중 세 차례에 걸쳐 예로우스톤 등을 탐사하는 서부 탐사대에 동참하였다. 이 중 1871년 탐사는 지질학자 페르디난 헤이든(Ferdinand V. Hayden)과 1873년에는 존 웨슬리 파웰(John Wesley Powell)의 조사팀과 함께 하였다. <엘로우스톤의 그랜드 캐니언(The Grand Canyon of the Yellowstone)>(1872)는 첫 탐사 후에 완성한 것으로 지질학자 헤이든의 학문적 시각이 반영되었다. 또한 전경에 그려진 백인과 인디언은 각각 문명과 야만(savage)을 상징하며, 인디언이 백인과 반대 방향인 어둠을 가리키는 행위는 야만의 시대가 저물고 서부에 문명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미국의 서부진출 정당성을 강조한 메시지는 모란의 <홀리크로스 산(The Mountain of Holy Cross)>(1875)에서도 발견된다. 이 작품은 산 정상에 덮인 눈이 십자가 형태를 띠고 있는 풍경을 그린 것으로 모란은 실제보다 십자가를 더욱 뚜렷하게 강조하였다. 이 십자가는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형태라는 점에서 초자연적인 신의 계시임을 함축적으로 전달하였고 이로써 그의 풍경화는 ‘명백한 운명’의 의의를 다시 한 번 확증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V. 결론

‘명백한 운명’을 고취시키는 서부 풍경화를 그린 비어슈타트와 모란은 모두 상업적으로도 성공을 거두었다. 비어슈타트의 <로키산맥, 랜더스 봉우리>는 1867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 전시되었고 유럽인들의 호평을 받았다. 판화로 제작된 모란의 작품들 역시 대중적 인기를 얻었으며, 굴지의 철도 회사들도 두 화가의 작품을 소장하였다.

그러나 명백한 운명을 장대한 서부 풍경으로 가시화한 이들의 작품에는 인디언 강제 이주나 학살과 같은 서부 진출 과정에서 빚어진 어두운 이면이 배제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 명령에 전적인 순종을 가르치며, 개인의 선행과 공리를 중시했던 프로테스탄트의 윤리는 제국주의적 국가 이데올로기를 프로테스탄트 신념으로 은폐한 ‘명백한 운명’의 구호 아래 본래의 윤리적 기능을 상실하였다.

참고문헌

- Wallach, Alan. "Thomas Cole: Landscape and the Course of American Empire." In *Thomas Cole: Landscape into History*. William H. Truettner and Alan Wallach eds.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and London, 1994.
- Miller, Angela. "Albert Bierstadt, Landscape Aesthetics, and the Meanings of the West in the Civil War Era." In *Art Institute of Chicago Museum Studies*. Vol.27, No.1, 2001, 40-59.
- Hendricks, Gordon. "The First Western Journeys of Albert Bierstadt", *The Art Bulletin*. Vol. 46, No. 3, Sep. 1964, 333-65.
- Baigell, Matthew and Kaufman, Allen. "Thomas Cole's The Oxbow: A Critique of American Civilization." In *Arts Magazine*. Vol. 55, Jan 1981, 136-9.
- Malczewski, Eric. "Materiality, iconic nature, and Albert Bierstadt's "Great Pictures"." In *American Journal of Cultural Sociology*. Vol. 4, No. 3, 2016. 359-84.
- 정무정. 「라파엘 전파와 미국 풍경화」. 『미술사학』 30, 2015. 39-65.
- 막스 베버. 박문재 옮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1904-5), 현대지성. 2018.

「정탐의 기록: 19세기 미국 낭만주의 풍경화와 프로테스탄트 윤리」에 대한 질의문

손 수 연 (목원대학교)

미국 서부 개척기의 ‘명백한 운명’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시기 허드슨강 화파의 활동내용을 분석한 흥미로운 논문입니다. 이 시기 미국 풍경화가들의 활약과 허드슨강 화파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질문을 드리자면 미국의 ‘명백한 운명’의 슬로건이 그림 외 당시 문학이나 예술의 다른 분야에도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작용한 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어슈타트, 모란의 풍경화는 주제와 양식적인 면에서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같은 신고 낭만주의 풍경화를 연상시키고 도상적 상징도 자연 대성당이나 십자가 산과 같은 유사한 모티브들의 사용이 흥미롭습니다. 2장의 금욕적 윤리에서 순수한 자연의 묘사를 금욕적 청교도주의와 연결시키신 점은 프로테스탄트적인 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3장의 4쪽에서 ‘명백한 운명’에서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욕구뿐 아니라 모든 것에서 사명을 최우선시한다는 점이 어떻게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결부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4장의 서부탐사를 나가는 장면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탐색하기 위해 정탐을 가는 장면과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는 꼭 프로테스탄트 윤리라기보다는 구교, 신교를 막론하고 식민지 팽창정책에서 공통적으로 내걸었던 구호가 아닐까 하는데, 어떻게 프로테스탄트 윤리라고 보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